

## 滋 養 強 壯 劑

洪 文 和

서울대학교 生藥研究所

### Nutrients and Tonics

Moon Wha Hong,

Natural Products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서 론

滋養強壯劑는 크게 保健劑에 속하는 藥劑이며 保健劑는 治療藥과 對立되는 概念이지만 保健劑나 滋養強壯劑를 明確하게 定義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藥務行政上 또는 商品分類上 醫藥品을 藥効別로 分類하는데 있어서 「滋養強壯變質劑」라는 範疇가 있으며 그 定義가 「生體의 構成成分을 形成하는 無機質(미네랄), 蛋白質, 脂質 및 에너지源인 糖質등과 變質劑라고 불리우는 無機質등의 製劑를 總稱한다」라고 되어 있다.

滋養強壯變質劑를 다시 細分하여 質素劑, 無機質製劑, 糖質製劑, 蛋白質아미노酸製劑, 臟器製劑, 乳幼兒治療劑, 其他의 滋養強壯變質劑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一般強壯劑」라고 하여 全身細胞의 同化作用 過程에 關與하여 그 作用을 充進시키고 全身의 영양상태를 양호하게 하며 쇠약해 있는 體力을 회복시키고 骨格筋의 緊張을 증가시켜 活力을 회복시키는 藥物을 總稱하며 이를 細分하여 1) 中樞神經을 흥분시켜서 物質代謝를 充進시키는 것 2) 消化器系에 作用하여 食慾을 增進시키고 消化吸收를 도와주는 것, 3) 滋養劑(炭水化合物, 蛋白質, 脂質), 4) 無機質, 5) 造血劑, 6) 비타민類로 하고 있다. 또 變質強壯劑라고 함은 全身의 新陳代謝(同化作用 및 異化作用)過程에 影響을 미치는 藥物을 新陳代謝藥 또는 變質藥이라고 하며 이와같은 變質作用을 지니고 있는 藥物中에서 특히 強壯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藥物을 變質強壯劑라고 한다.

이밖에 드 소위 成人病을 豫防하고 나아가서는 老化防止를 豫防하는 製劑등도 滋養強壯劑 또는 더 넓게는

保健劑에 포함되는 경향에 있다.

製藥工業에서 이른바 3大 保健藥이라고 하여 비타민劑, 滋養強壯劑, 및 기타 代謝性 藥劑를 稱하며 醫藥品 總生産額중에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원래 醫藥品의 藥効別 生産高趨移는 傷病構造의 變遷과 有關한것이지만 3大 保健藥은 抗生物質과 아울러 製藥工業의 基柱를 이룰만큼 安定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어떤 保健藥 또는 滋養強壯劑를 開發하느냐하는 문제는 製藥會社의 成長의 中核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保健劑의 生産과 需要는 앞으로 크게 伸張될 것이며 이와 같은 高度成長이 豫測되는 根據를 列舉하면 1) 우리나라의 國民所得이 계속 高度成長하여 國民의 生活水準이 中進國型으로 進展됨에 따라 醫療品이 사람의 生命有關物質이라는 特性때문에 食品 다음가는 必需品으로 클로즈업하게 된다. 이와같은 단계에 있어서는 醫藥品消費高의 伸張率이 國民所得의 伸張率을 훨씬 上廻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2) 保健意慾의 向上은 治療藥보다도 豫防的인 保健劑에 對한 需要를 높인다. 3) 治療藥의 副作用, 社會機構의 複雜化에 따르는 神經症의 增大, 生活環境의 公害化등이 保健劑에 對한 趨向을 증진시킨다. 4) 平均壽命의 延長으로 老齡人口의 增加를 초래하여 老化防止 및 成人病 豫防등에 對한 關心度가 높아진다. 5) 保健劑의 成分이 主로 人體 代謝過程의 常性分 또는 中間體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安全性이 높고 直接的인 藥効評價가 어렵기 때문에 비교적 安易한 태도로 開發에 臨할수 있으며 販賣 促進도 大衆的인 宣傳에 期待할 수 있고 收益性도 크다. 6) 隣國인 일본의 醫藥品의 消費性向이 크며 生化學根據가 確認되지 않는 物質도 保健藥으로 개발하여

유행시키는데 성공한 事例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醫藥品消費 패턴도 그와 類似한 面이 있다.

7) 近來의 漢方리라이벌 붐은 소위「補藥」에 對한 理解度를 증진시켜주고 있다.

이와같은 情勢가운데서 滋養強壯劑 또는 保健劑에 대한 올바른 認識을 모색하는 동시에 漢方製劑 또는 生藥配合製劑 가운데서 그와 같은 滋養強壯劑 또는 保健劑를 찾기 위한 基礎를 검토하고자 한다.

### 滋養強壯劑의 漢方的 概念

漢方製劑 또는 生藥配合製劑로 되어있는 滋養強壯劑 또는 保健劑를 論함에 있어서 漢方體系가 지니고있는 그와같은 藥劑에 대한 概念 또는 原理를 概觀할 必要가 있다.

漢方藥物學에서 滋養強壯劑에 해당하는 概念은 「補劑」 또는 「補養藥」이라고 할수 있겠다.

補劑 또는 補養藥이란 「人體의 陰陽·氣血의 不足(虛)을 滋補하고 이에 依하여 人體의 機能減退를 振興시켜주는 藥物 또는 方劑를 稱한다」고 되어 있다. 虛症은 다시 4종류의 類型으로 나누어 陽虛, 陰虛, 氣虛, 血虛로 하며 이에따라 補養藥도 各各 補氣藥, 助陽藥, 補血藥, 養陰藥의 4종류로 나눈다.

人體의 健康과 病的상태를 相對的인 均衡 概念위에 서 把握하고 있는 漢醫學의 假說體系는 補劑 또는 補養藥의 供給만으로 能事를 삼지 않고 過剩成分과 代謝廢物의 調整 및 排泄을 「瀉」라고 하는 概念으로 定立하고 있어 虛에 對한 「補」와 아울러 健康維持의 2大要因으로 삼고 있다. 缺乏 또는 不足에 대한 補充을 滋養強壯劑의 主軸으로 삼는 現代의 醫藥學的 體系가운데에 「補」와 아울러 「瀉」를 健康의 要因으로 삼는 漢方的 概念을 종합시킴으로서 生藥을 主藥으로 하는 現代적 滋養強壯劑를 開發한다는데는 깊은 研究와 思慮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漢方的 補養藥의 概念은 別리 補農本草經의 上·中·下 三品으로 藥物을 分類하는데서 찾을수 있으며 上品藥은 「主養命, 無毒, 多服不傷人, 欲輕身益氣, 不老年者 本上經」, 中品藥은 「主養性, 無毒有毒, 斟酌其宜, 欲遏病, 補虛羸者, 本中經」, 下品藥은 「主治病, 多毒, 不可久服, 欲除寒熱邪氣, 破積聚, 愈疾者, 本下經」이라고 하여 上品藥은 이른바 不老延年的 神仙藥에 해당되고 中品藥은 補益強壯藥이며 下品藥은 治療藥임을 알 수 있다. 藥物이 이와 같은 3品分類에 의한 分類가 可能하다면 上品藥 및 中品藥이 滋養強壯劑 또는 保健藥

에 해당되는 概念임을 알 수 있다.

從來 上·中品藥의 概念을 觀念的이며 非現實的인 假說이라고 度外視하던 現代醫藥學이 「非特異性 抵抗力增大」 "a state of nonspecifically increased resistance" of the organism (SNIR)이라는 새로운 概念을 展開시키는 동시에 그와같은 作用을하는 活性物質인 "adaptogen"을 漢方的 補養藥들 중에서 증명해낼수 있다는 研究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上·中品藥의 概念에 대한 接近이 可能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事實은 注目할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近來 漢方藥物에 對한 藥理學的, 生化學的 또는 分子生物學的인 研究가 活潑해짐에 따라 人蔘이 細胞의 蛋白質 生合成 促進 또는 甘草가 副腎皮質內分泌 및 代謝에 影響을 주는 것을 비롯하여, 糖質代謝, 脂質代謝, 蛋白質代謝, 細胞分裂, 免疫과 알러지, 炎症과 癌 등에 對하여 影響을 주는 生藥이 있을 수 있다는 可能性이 示唆되고 있으며 이와같은 可能性의 示唆는 漢方藥物의 3品分類的인 假說體系가 노상 荒唐無稽한 것만은 아니라는 印象을 주고 있다.

그러나 現代 醫藥學的으로 藥效가 立證된 것은 少數에 불과하며 아직 거의 대다수가 未確認 상태인 채로 놓여 있다. 하물며 이와같은 藥物들을 複雜하게 配合한 漢方方劑의 종합적인 有效性을 검토 확인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現代 醫藥品の 處方 構成原理와 漢方的 方劑原理와는 根本的으로 相異點이 많으며 現代의 處方은 1) 單一化合物을 그의 主作用으로 代表시키고 2) 恒別的 症狀에 대한 對症療法劑를 組合시키고 3) 各藥物의 增強補助劑와 調劑 및 製劑에 필요한 修飾藥物을 添加하여 構成하는 것을 原理로 하는데 反하여 漢方的 方劑原理는 1) 作用單位가 生藥이며 그의 各有效成分의 綜合效果를 期待한다. 2) 隨證的 用藥을 하며 3) 方劑 構成原則에 따라 配合이되며 作用目的 以外的 것은 添加하지 않는 것 등을 그의 特徵으로 한다.

이와같은 漢方方劑의 特徵에 對한 연구나 검토도 없이 現代의 植物成分의 見地에서 生藥複合劑를 만든다든가 合成化學藥品과 生藥의 配合劑를 만드는 事例가 많으나 좀더 慎重한 基礎研究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漢方的 補養藥 및 方劑

漢醫學 및 本草學에서 補養效果가 있다는 生藥 및 處方例를 1959년에 중국 본토에서 발간된 「中醫學 概論」

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補養藥

- 1) 補氣藥: 人蔘, 黃芪, 白朮, 甘草.
- 2) 助陽藥: 菴蓉, 鹿茸, 巴戟天, 葫蘆巴, 杜冲, 續斷, 蛤蚧, 冬虫夏草, 菟絲子, 瀧葵藜, 益智仁, 海狗腎
- 3) 補血藥: 熟地黃, 當歸, 白芍藥, 何首烏, 阿膠, 紫河車.
- 4) 養陰藥: 西洋參, 沙參, 石斛, 天門冬, 麥門冬, 枸杞子, 龜板, 龍甲.

2. 補養劑

方名 바로뒤의 括弧는 出典名, 다음 括弧는 組成藥物을 표시한 것이다.

- 1) 四君子湯(局方)(人蔘, 白朮, 茯苓, 甘草)
- 2) 補中益氣湯(李東垣)(黃芪, 人蔘, 甘草, 白朮, 陳皮, 當歸, 升麻, 柴胡, 生薑, 大棗)
- 3) 四物湯(局方)(熟地黃, 當歸, 川芎, 白芍藥)
- 4) 當歸補血湯(李東垣)(當歸, 黃芪)
- 5) 歸脾湯(濟生方)(人蔘, 黃芪, 龍眼肉, 白朮, 茯苓, 生薑, 當歸, 酸棗仁, 遠志, 木香, 甘草, 大棗)
- 6) 小建中湯(傷寒論, 金匱方)(芍藥, 桂枝, 甘草, 生薑, 大棗, 膠飴)
- 7) 炙甘草湯(傷寒論)(甘草, 大棗, 阿膠, 生薑, 人蔘, 生地黃, 桂枝, 麥門冬, 麻仁)
- 8) 虎潛丸(朱丹溪)(黃柏, 知母, 熟地黃, 龜板, 白芍藥, 陳皮, 牛膝, 虎脛骨, 鎖陽, 當歸, 羊肉)
- 9) 左歸丸(張景岳)(熟地黃, 牛膝, 龜板膠, 鹿角膠, 山藥, 枸杞, 山茱萸, 菟絲子, 茯苓)
- 10) 右歸丸(張景岳)(熟地黃, 山茱萸, 當歸, 肉桂, 山藥, 枸杞, 鹿角膠, 杜冲, 菟絲子, 製附子)
- 11) 六味地黃丸(錢乙)(熟地黃, 山茱萸, 乾山藥, 澤瀉, 牡丹皮, 白茯苓)
- 12) 金匱腎氣丸(金匱)(熟地黃, 山茱萸, 乾山藥, 澤瀉, 茯苓, 牡丹皮, 桂枝, 附子)
- 13) 生脈散(千金)(人蔘, 麥門冬, 五味子)

中國傳來의 漢醫學 및 本草學을 우리 經驗을 통하여 篩別하므로서 取捨選擇한 體系的인 集成인 「東醫寶鑑」에서 一般的 滋養強壯藥 및 方劑라고 생각되는 「身形」篇에 收載되어 있는 單方 및 方劑는 다음과 같다.

1. 單方

黃精, 菖蒲, 菖蒲酒, 甘菊花, 菊花酒, 天門冬, 天門冬酒, 地黃, 地黃酒, 朮, 菟絲子, 百草花, 何首烏, 何首烏丸, 松脂, 槐實, 柏葉, 枸杞, 金髓煎, 茯苓 五加皮, 桑椹, 蓮實, 芡仁, 海松子, 胡麻, 蔓菁子, 人乳汁, 白粥

2. 方劑

- 1) 瓊玉膏(入門)(生地黃, 人蔘, 白茯苓, 白蜜)
- 2) 三精丸(入門)(蒼朮, 地骨皮, 黑桑椹)
- 3) 延年益壽不足丹(必用方)(何首烏(赤, 白), 黑豆煎汁, 甘草汁, 地骨皮, 白茯苓, 生乾地黃, 熟地黃, 天門冬, 麥門冬, 人蔘)
- 4) 還齡萬壽丹(丹溪心法)(茯苓, 赤石脂, 川椒, 朱砂乳香, 燈心, 大棗, 人蔘)
- 5) 延齡固本丹(回春)(菟絲子, 肉菴蓉, 天門冬, 麥門冬, 生地黃, 熟地黃, 山藥, 牛膝, 杜冲, 巴戟, 枸杞子, 山茱萸, 白茯苓, 五味子, 人蔘, 木香, 柏子仁, 覆盆子, 車前子, 地骨皮, 石菖蒲, 川椒, 遠志, 甘草, 澤瀉)
- 6) 斑龍丸(正傳)(鹿角膠, 鹿角霜, 菟絲子, 柏子仁, 熟地黃, 白茯苓, 破古紙)
- 7) 人蔘固本丸(必用方)(天門冬, 麥門冬, 生乾地黃, 熟地黃, 人蔘)
- 8) 玄菟固本丸(必法)(菟絲子, 熟地黃, 生乾地黃, 麥門冬, 五味子, 茯苓, 山藥, 蓮肉, 人蔘, 枸杞子)
- 9) 固本酒(衛生篇)(生乾地黃, 熟地黃, 天門冬, 麥門冬, 白茯苓, 人蔘)
- 10) 烏鬚酒(回春)(黃米, 麥門冬, 生地黃, 何首烏, 天門冬, 熟地黃, 枸杞子, 牛膝, 當歸, 人蔘)

이 外에도 「精」, 「氣」, 「神」, 「血」, 「虛勞」等의 篇에서 滋養強壯劑에 해당되는 單方 및 方劑를 찾을수있다.

이와 같은 補養單方 및 補養方劑에 대한 現代醫學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아직 極少數를 除外하고는 究明이 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漢方藥物學에서는 臟器마다 指定된 補瀉·溫涼의 作用을 지닌 藥物이 있는 것으로 規定되고 있는데 이와같은 藥效發現部位의 選擇性的 概念도 科學化될 필요가 있다. 그와같은 例로서 明朝의 羅廷賢著 萬病回春(1587)記載의 臟腑補瀉溫涼藥을 보면 다음과 같다.

臟腑補瀉溫涼의 藥物表

1. 肺

- 1) 補...人蔘, 黃耆, 天門冬, 阿膠, 紫菀, 山藥, 瓜蒌, 五味子, 麥門冬, 百部, 白膠, 白茯苓, 馬兜鈴, 沙參.
- 2) 瀉...葶藶, 防風, 枳殼, 檳榔, 桑白皮, 通草, 澤瀉, 琥珀, 赤茯苓, 蘇葉, 枳實, 麻黃, 蘿蔔子, 杏仁.
- 3) 溫...乾薑, 生薑, 肉桂, 木香, 白芷, 蘇子, 半

夏, 橘紅, 胡椒, 川椒.

4) 涼... 山梔子, 桔梗, 石膏, 枇杷葉, 玄蔘, 貝母, 青黛, 羚羊角, 竹瀝.

2. 大腸

1) 補... 粟殼, 牡蠣, 木香, 蓮子, 肉苁蓉, 訶子, 五倍子, 龍骨, 榛子, 砂糖, 糯米, 石蜜, 棕櫚子.

2) 瀉... 大黃, 芒硝, 牽牛, 巴豆, 枳殼, 枳實, 桃仁, 檳榔, 葱白, 麻子仁, 續隨子, 樞實.

3) 溫... 人蔘, 乾薑, 肉桂, 半夏, 吳茱萸, 生薑, 胡椒, 丁香, 糯米, 桃花石.

4) 涼... 條芩, 槐花, 黃連, 大黃, 胡黃連, 梔子, 連翹, 芒硝, 苦蔘, 石膏.

3. 胃

1) 補... 白朮, 人蔘, 黃耆, 蓮子, 炙甘草, 芡實, 山藥, 陳皮, 半夏, 糯米, 蜂蜜, 砂糖, 白糖, 荔枝, 林檎, 棗子, 山楂, 麥芽, 神麴.

2) 瀉... 大黃, 硝石, 牽牛, 巴豆, 枳實, 厚朴, 枳殼, 三稜, 莪朮.

3) 溫... 附子, 肉桂, 乾薑, 生薑, 丁香, 木香, 藿香, 砂仁, 益智, 香附子, 川芎, 胡椒, 肉苁蓉, 辛荑, 白朮, 草薢, 吳茱萸, 香薷, 糯米, 諸糖.

4) 涼... 石膏, 山梔子, 大黃, 玄明粉, 寒水石, 黃連, 知母, 生地黃, 黃芩, 石斛, 玉屑, 連翹, 滑石, 葛根, 蘆根.

4. 脾臟

1) 補... 人蔘, 白朮, 黃耆, 炙甘草, 山藥, 芡實, 陳皮, 瀉芍, 升麻, 柴胡, 棗, 枸杞, 白茯苓, 蜂蜜, 砂糖, 甘蔗, 牛肉.

2) 瀉... 枳殼, 枳實, 巴豆, 葶藶, 青皮, 大黃, 山楂, 神麴, 麥芽, 防風.

3) 溫... 丁香, 木香, 乾薑, 生薑, 附子, 官桂, 砂仁, 薑薤, 川芎, 益智, 茱萸, 胡椒, 花椒, 藿香, 良薑, 紅豆, 糯米, 晚米, 甜酒.

4) 涼... 黃連, 連翹, 大黃, 黃芩, 寒水石, 石膏, 山梔子, 芒硝, 西瓜, 菜豆, 苦茶, 玄明粉.

5. 心臟

1) 補... 人蔘, 天竺黃, 金屑, 銀屑, 麥門冬, 遠志, 山藥, 川芎, 當歸, 羚羊角, 紅花, 炒鹽.

2) 瀉... 枳實, 葶藶, 苦蔘, 貝母, 玄胡索, 杏仁, 鬱金, 黃連, 前胡, 半夏.

3) 溫... 藿香, 蘇子, 木香, 石菖蒲, 乳香, 沈香.

4) 涼... 黃連, 牛黃, 竹葉, 知母, 山梔子, 貝母, 連翹, 真珠, 蘆根, 玄明粉, 犀角.

6. 小腸

1) 補... 牡蠣, 石斛, 甘草梢.

2) 瀉... 海金沙, 大黃, 續隨子, 葱白, 荔枝, 紫蘇.

3) 溫... 巴戟, 茴香, 大茴香, 烏藥, 益智仁.

4) 涼... 木通, 黃芩, 滑石, 黃柏, 通草, 茅根, 山梔子, 車前子, 豬苓, 澤瀉, 芒硝.

7. 膀胱

1) 補... 橘核, 龍骨, 續斷, 益智仁, 菖蒲, 黃芩.

2) 瀉... 芒硝, 豬苓, 澤瀉, 滑石, 車前子, 瞿麥, 木通, 萱草根.

3) 溫... 茴香, 肉桂, 葶藶, 山茱萸, 烏藥, 沈香.

4) 涼... 黃柏, 知母, 防己, 滑石, 地膚子, 甘草炒, 石膏, 生地黃.

8. 腎臟

1) 補... 知母, 黃柏, 生地黃, 熟地黃, 龜板, 虎骨, 杜沖, 鎖陽, 覆盆子, 牛膝, 山藥, 鹿茸, 枸杞, 當歸, 肉蓯蓉, 山茱萸.

2) 瀉... 豬苓, 澤瀉, 琥珀, 白茯苓, 苦茗, 木通.

3) 溫... 附子, 乾薑, 肉桂, 沈香, 破古紙, 栝實, 烏藥, 硫黃, 鍾乳石, 胡蘆巴, 白馬莖, 狗肉, 陽起石, 諸酒, 鰻魚, 五味子, 巴戟天.

4) 涼... 黃柏, 生地黃, 地骨皮, 牡丹皮, 知母, 玄蔘.

9. 心包絡

1) 補... 黃耆, 人蔘, 肉桂, 胡蘆巴, 菴蓉, 鹿血, 破古紙, 沈香, 菟絲子, 狗肉, 諸酒.

2) 瀉... 大黃, 芒硝, 枳殼, 黃柏, 山梔子, 烏藥.

3) 溫... 附子, 乾薑, 肉桂, 臘臍, 沈香, 茴香, 川芎, 益智, 苁蓉, 補骨脂, 狗肉, 硫黃, 烏藥, 鍾乳石, 栝子仁, 燒酒.

4) 涼... 黃柏, 知母, 黃連, 黃芩, 山梔子, 柴胡, 滑石, 臘雪, 玄明粉, 寒水石, 石膏.

10. 三焦

1) 補... 人蔘, 黃耆, 藿香, 益智, 炙甘草, 白朮, 桂枝.

2) 瀉... 枳殼, 枳實, 陳皮, 烏藥, 神麴, 澤瀉, 蘿蔔子.

3) 溫... 附子, 丁香, 益智, 仙茅, 葶藶, 厚朴, 乾薑, 茴香, 菟絲子, 沈香, 茱萸, 胡椒, 補骨脂.

4) 涼... 石膏, 黃芩, 黃柏, 山梔子, 滑石, 木通, 車前子, 龍膽草, 地骨皮, 知母.

11. 膽

1) 補... 當歸, 山茱萸, 酸棗仁, 五味子, 諸酒, 胡椒, 辣菜, 鷄肉, 烏梅.

2) 瀉... 柴胡, 青皮, 黃連, 白芍藥, 川芎, 木通.

3) 溫... 乾薑, 生薑, 肉桂, 陳皮, 半夏.

4) 涼... 黃連, 黃芩, 柴胡, 竹茹, 龍膽草.

12. 肝臟

- 1) 補…木瓜, 阿膠, 沙蔘, 橘葉, 酸棗仁, 青梅, 薏苡仁, 山茱萸, 豬肉, 羊肉, 鷄肉, 諸酒, 諸醋.
- 2) 瀉…柴胡, 黃連, 青黛, 龍膽草, 白芍藥, 黃芩
- 3) 溫…木香, 肉桂, 吳茱萸, 楊梅, 桃子, 杏子, 李子
- 4) 涼…黃連, 黃芩, 龍膽草, 車前子, 胡黃連, 柴胡, 草決明, 羚羊角.

生藥製劑의 問題點

漢方を 科學化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障壁이 漢方에서의 投藥이 疾病의 病因이나 病態에 依하지 아니하고 症候群이라고도 할수 있는 「證」의 把握에 依하여 決定된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病名에 對應하는 一般의 處方이 定型化되어 있지 않는 漢方製劑를 現代劑型으로 商品化하였을 때 適應症이나 適應病名을 表示하는데 難點이 있을것이다. 그러므로서 漢方製劑를 “ready-made”로 商品化할 수는 있으나 그 사용의 指示는 專門家가 해야하는 實質의 으로는 “order-made”인것과 마찬가지로 되어야 한다는 論者도 있다.

漢方製劑의 開發에 있어서 또하나 問題點으로 提起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李濟馬에 依하여 創始된 「四象醫學」이라고 하는 體質藥理說이다. 사람을 四象人型, 即 體質에 따라 四大類型으로 分類하여 太陰人, 少陰人, 少陽人, 太陽人으로 하며 各 體質類型에 따라 要藥과 禁忌藥이 있다는 學說이다. 이 概念에 對한 現代醫藥學的 確認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종래의 漢方醫學이 「藥必隨證, 不關於人」이라는 見解에 反하여 「藥乃局限於人」이라는 四象醫學論은 注目할만하다. 四象藥理說에 의하면 人蔘은 少陰人에 있어서는 「調榮養衛」의 要藥이지만 少陽人에 있어서는 「熱升毒」의 禁忌藥으로 되어있다. 四象藥理說을 信奉實踐하는 人口가 적지않은 우리의 現實에 비추어 이에 對한 科學的인 檢討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1) 太陰人 要藥: 鹿茸, 鹿角, 龍眼肉, 龍骨, 龍腦, 龍齒, 虎骨, 牛黃, 熊膽, 麝香, 麥門冬, 天門冬, 柏子仁, 蓮肉, 芡實, 薏苡仁, 萊菔子, 菘蓂子, 牽牛子, 桔梗, 升麻, 葶根, 麻黃, 黃芩, 白芷, 遠志, 石菖蒲, 黃栗, 白果, 大黃, 麻仁, 款冬花, 酸棗仁, 皂角刺, 皂莢藥本, 山藥, 貝母, 浮萍, 射干, 烏梅, 葶藶子, 楊根皮, 桑白皮, 桑葉, 桑椹子, 桑寄生, 紫菀, 五味子, 使君子, 滋斷, 葶藶, 蒲公英, 威靈仙, 白薇, 白欝, 白礬, 綠礬, 蒲黃, 蛇床子, 鳳仙子, 榧子, 砂糖, 金箔, 棕櫚皮, 常山, 沙蔘, 檳實, 澤蘭, 馬兜鈴, 全蠍, 穿山甲, 續隨子, 蔓菁子, 天竺黃, 南瓜, 蕨菜, 淫羊藿, 桑螵蛸,

白靈蠶, 大豆, 大豆黃卷, 土茯苓, 杏仁, 李實, 松葉, 松花, 松脂, 樺皮, 蒼耳子, 仙茅根, 薺萇, 紫草, 海藻, 海帶, 石耳, 昆布, 荔枝, 松耳, 靈母, 天麻, 鯉魚, 鱉鱉, 白芨, 冬瓜子, 大麻, 榆皮, 髮灰, 京墨, 金, 銀, 唐皂角, 青礬石, 糯米, 小麥, 竹茹, 竹瀝, 酸漿, 蚯蚓, 蟹, 海松子, 石油, 土芋, 甘菊, 瓜蒂, 蓖麻子, 茉莉.

- 2) 少陰人 要藥: 人蔘, 附子, 草烏, 烏頭, 白附子, 桂皮, 桂枝, 砂仁, 牛膝, 白何首烏, 赤何首烏, 白朮, 蒼朮, 當歸, 白芍藥, 赤芍藥, 川芎, 木香, 丁香, 沈香, 蘇合香, 安息香, 良薑, 生薑, 乾薑, 藿香, 香薷, 半夏, 草果, 草薢, 肉荳蔻, 白荳蔻, 香附子, 黃芪, 陳皮, 橘紅, 青皮, 益智仁, 砂仁, 益母草, 蘇子, 金沸草, 丹蔘, 川練子, 苦練根, 玄胡索, 赤石脂, 石硫黃, 五靈脂, 大棗, 枳實, 枳殼, 楮實, 巴豆, 巴戟, 貫衆, 胡桃, 鬱金, 細辛, 石斛, 罌粟殼, 獨頭蒜, 杜沖, 丁公藤, 川椒, 茵陳蒿, 蘇木, 南星, 蕪子, 小茴香, 三七根, 三稜, 蓬朮, 水鐵, 甘草, 阿膠, 訶子, 紫河車, 吳茱萸, 白檀香, 山查肉, 蜂蜜, 厚朴, 禹餘糧, 乾漆, 葱白, 桃仁, 烏藥, 百草霜, 甘藷, 食鹽, 鷄肉, 雉肉, 鳩肉, 獐肉, 狗肉, 羊肉.

- 3) 少陽人 要藥: 地黃(生·熟·乾并)肉蓯蓉, 菟絲子, 枸杞子, 覆盆子, 山茱萸, 牡丹皮, 羌活, 獨活, 猪苓, 澤瀉, 柴胡, 前胡, 荊芥, 防風, 黃連, 黃柏, 菘蓂仁, 天花粉, 牛蒡子, 地骨皮, 破古紙, 山梔子, 車前子, 青箱子, 金銀花, 忍冬藤, 葵花, 乳香, 沒藥, 甘遂, 大戟, 苦蔘, 薄荷, 靈砂, 朱砂, 玄蔘, 連翹, 木通, 燈心, 瞿麥, 冬葵子, 石膏, 黃丹, 輕粉, 琥珀, 青蒿, 紅花, 檳榔, 蘆薈, 芒硝, 青黛, 斑貓, 蜈蚣, 夏枯草, 童便, 木賊, 知母, 茯苓, 釣鉤藤, 蕎麥, 胡桐淚, 虎杖根, 海金沙, 石雄黃, 自然銅, 爐甘石, 馬齒莧, 地膚子, 草決明, 大麥實, 自己尿, 牡蠣粉, 海蔘, 犀角, 地榆, 蜘蛛, 田螺, 五倍子, 龜板, 鱉甲, 眞珠, 銅屑, 菘, 蟾蜍, 蝟皮, 石榴, 茄子, 柑子, 王不留行, 滑石, 海浮石, 麥芽, 神麩, 白扁豆, 赤小豆, 荳蔻, 山豆根, 木鱧子, 水銀, 豬肉.

- 4) 太陽人 要藥: 蘆根, 蕎麥, 木瓜, 蚌蛤, 五加皮, 杓頭糠, 獼猴桃, 鯉魚, 葡萄根, 鮑魚, 櫻桃, 葡萄, 松節, 蛤蚧.

個別的인 生藥에 對하여 三品分類가 있듯이 漢方方劑를 그 效能과 適應에 따라서 三品分類를 試圖한 것은 우리나라의 黃度淵의 方藥合篇이 처음이며 注目할만하다. 方藥合篇에 收載되어 있는 467個의 處方을 上統(補劑) 123個, 中統(和劑) 181個, 下統(攻劑) 163個로 分類하고 있으며 上統에 屬하는 123個의 處方을 補

劑라 하였으니 生藥製劑의 滋養強壯劑를 開發하는 資料로서 檢討하여 볼 價値가 있다고 생각한다.

### 生藥製劑의 우리나라 現況

우리나라에서 현재 제조되고 있는 滋養強壯劑관계 生藥製劑는 純漢方製劑와 現代藥物에 生藥을 配合한 製劑와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純漢方製劑일지라도 劑型은 모두 現代化되어 膏劑, 粉劑, 엑스劑, 液劑, 시럽劑, 캡슐劑, 錠劑, 丸劑 등으로 되어 있으며 純漢方製劑로서는 瓊玉膏, 十全大補湯, 四物湯, 六味地黃元, 八味丸, 雙和湯, 雙金湯, 四君子湯 등이 있으며 生藥配合製劑로는 비타민類, 性호르몬, Glucuronolactone 등 成分에 生藥을 配合한것이 많다. 配合된 生藥으로는 人蔘, 淫羊藿, 杜沖, 枸杞子, 吳茱萸, 黃精, 何首烏, 肉蓯蓉, 當歸, 黃芪, 巴戟, 蒼朮, 五味子, 芍藥, 桂皮, 茯苓, 甘草등이 主된 것이며 이밖에 半夏, 唐木香, 香附子, 吉草根, 砂仁, 紅花, 大黃, 川芎, 印度蛇木根(Rauwolfiae Radix)등도 包含되고 있다.

生藥 配合製劑에 있어서 生藥配合의 根據는 個別的 生藥의 成分 및 藥效에 對한 現代 生藥學의 考慮에 依한 것이지 漢方의 處方構成原理 또는 複合作用의 臨床의 究明에 依한 것은 아닌것으로 보인다.

### 滋養強壯劑로서의 生藥製劑의 問題點

1. 國民所得의 增大에 따라 滋養強壯劑 系統藥劑의 需要가 大幅 上昇하고 있는 趨勢에 비추어 國產 生藥資源을 原料로 하는 滋養強壯劑를 開發함이 時急하다.
2. 우리나라가 人蔘의 宗主國이니만큼 人蔘을 主原

料로하는 滋養強壯劑를 研究開發하여 國際的 認定을 받는것이 우리나라 藥學界 및 製藥界에 負荷된 共同課題이다.

3. 生藥 配合製劑의 處方構成을 위한 基礎研究가 이루어져야 한다.
4. 漢方製劑일지라도 有效性 및 安全性에 對한 究明이 이루어져야 한다.
5. 生藥製劑에서 原料로 사용되는 生藥들은 基源, 產地, 採取時期, 調製法(乾燥, 加工等)保管, 保存期間등에 따라 成分의 含量 및 藥效가 一定치 少음으로 藥效 및 主效成分을 基準으로 하는 規格이 設定되어야 한다
6. 生藥製劑의 品質管理를 위한 分析方法이 開發되어야 할 것이지만 複合 天然物製劑의 分離分析의 可能性에는 限度가 있음을 考慮하여 製藥許可의 檢定法 審査基準에 伸縮性이 있어야 할것이다.
7. 生藥製劑의 經時變化에 따르는 藥效成分의 酸化, 重合, 加水分解등에 의한 變化를 追跡할 수 있는 檢定法의 開發과 이와 같은 經時變化를 防止하여 安定性을 높이는 方法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 문 헌

- 1) 許浚: 東醫寶鑑, 李朝 光海君 5年, 1613.
- 2) 龔廷賢: 萬病回春, 1587.
- 3) 黃度淵: 方藥合篇, 李朝 高宗 22年, 1885.
- 4)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李朝 光武 31年, 1894.
- 5) 南京中醫學院: 中醫學概論, 1959.
- 6) 申信求: 申氏本草學 總論 및 各論, 1973.
- 7) 和漢藥: 代謝 第10卷 5月 臨時增刊號 總輯, 1973.